

오피니언

월/요/광/장

임 내 현



이번 독일 월드컵대회에서도 한국이 출전할 때마다 엄청난 수의 한국인들이 길거리에 나와 뜨거운 응원을 보였다.

서해였던 시민의식분야에서 2002년 월드컵에서는 오히려 일본을 앞섰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길거리 응원 예찬

경사하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소간 열등감을 가졌던 것을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시민정신의 성장은

스포츠경기를 통해 시민의식이 성장한 것은 서울올림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측면이 많았다. 필자는 2002년 월드컵 직후 중앙 어느 일간지의 칼럼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고양된 시민정신을 정착시켜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도 큰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길거리응원은 열정을 발산하고 서로 단합하는 축제가 되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기간 중 길거리응원을 통해 범국민적 축제가 탄생되었고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도 그 전통이 이어져 감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길거리응원은 단순한 스포츠행사가 아니다. 세계적 문화관광 상품이 되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축구로 하나 뒀던 열정, 이젠 사회통합으로

독일 월드컵 축구에 출전했던 대표팀이 어제 돌아왔다. 조별리그 1승1무1패의 기록으로 아깝게 16강의 벽을 뚫진

태극전사들이 거친숨을 몰아쉬며 싸우는 동안 우리 국민은 또 한번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

민적 에너지를 보고 어느 외신은 한국 팬들만큼 주위사람을 동화시키는 열정을 보지 못했다고 평했다.

우리가 월드컵에 심취해 있는 동안 정치·경제·노동·교육 등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들이 묻혀버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家計만 울린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총액한도를 제한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한 극약처방이다.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더라도 서민이나 중산층에게까지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된다.

서민들은 은행 돈줄이 막히면서 최악의 경우 사채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 관련 부서는 물론 금융과 통화 당국까지 오로지 부동산에만 매달려 있는 듯한 분위기가.

기고

우 제 길



현재 광주는 노무현 정부의 문화수도 선포 이후 그 모양새를 갖추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2004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광주의 문화수도건설은 이 지역의 문화의 특색, 그리고 뿌리와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새로운 문화건설의 몸짓으로 그야말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호남지역은 그 원류부터 타 지방에 비해 낫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호남문화의 원류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문화정책과 문화수도의 모양새는 크고 비대해졌지만 실상 그 속은 갑자기 중앙에서 리모콘을 가지고 나타나 TV를 조종하듯 문화정책을 펼친 오늘의 광주의 정책에서 예향을 얼마나

호남문화의 뿌리와 근원 캐기

사랑하는 도시를 뜻한다. 즉 예술을 향유하는 계층이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예술을 찾고 나만의 문화를 형성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장 임방울 선생을 비롯한 판소리, 소치 허련을 위시로 한 남종화의 맥이 계속해서 이어진 곳으로 그러한 예술적 분위기는 오지호 선생, 양수아, 강응운 선생을 이어나 지난날의 근·현대미술의 중간적 매김에 의해 그 진정한 예술적 정신성의 흐름이 계속되었다.

느끼고 실천하며 문화수도의 그림을 만들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시곗달로 느닷없이 짝이 없는 지금 우리의 광주를 묻어둔 채 그 위에 문화수도를 건설하려는 새로운 발상이 너무나 우려되어, 오늘의 예향을 현시점에서 되돌아보아야겠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인 면에서 세계로 향하는 문화도시의 확실한 정신적·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지역 문화를 뛰어 넘어 세계적인 문화로 거듭날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다음의 후손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하고, 위의 쟁점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이는 그야말로 최악이 될 것이다.

<미술관장>

몇몇 그릇된 행동으로 한국 전체 이미지 나빠진다

회사 일 때문에 중국을 다녀오다 중국인들의 현지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는 글을 봤다.

중국을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노리고 있는 거대 시장의 하나다. 물론 이들 한국인에 대한 평가가 일부 관광객일 수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가 자칫 한국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종섭·광주시 남구 호남동

기고

최 진 수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시대에 들어왔고, 이와 맞물려 출산력 저하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언뜻 생각하면, 출산 장려가 고령사회문제를 해결할 좋은 해법인 것 같으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황된 생각인지 모른다.

첫째, 낯지도 않은 한반도 남쪽에 한 없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가? 둘째, 인구 감소가 세계적인 추세인가? 셋째, 근본적으로 아이를 많이 내면 당장 고령사회의 취약점이 해소되는가?

출산장려가 고령사회의 대책인가?

세계의 인구밀도는 1km당 45명인데, 우리나라는 481명/km으로,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3위의 '인구 조밀국가'다.

전 세계적인 인구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인구 증가의 추세에서 유럽이나 일본, 한국은 출산 장려책을 쓰고 열대지방 개발도상국에는 출산 제한 정책을 쓴다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윤리기준에 타당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증가 정책을

퍼는 유럽 국가들도 출산 장려는 다양한 인구 정책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의 대책은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세금의 대폭인상을 통한 사회복지 안전망의 강화, 외국인에 대한 세국적 가치관과 제도적 차별의 극복, 은퇴 노인의 생산 활동 참여 확대, 승진 지상주의적인 직장 문화의 선진화를 쓰고 열대지방 개발도상국에는 출산 제한 정책을 쓴다는 것이 인류의 보편적 윤리기준에 타당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광주-전남건강포럼대표>

부모님 공과금 자녀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 모색해 봤으면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고향 부모님의 주민세 같은 잡다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들었다.

특히 남해군은 세금 납부를 효도상품으로 개발해서 도시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상품을 구입,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노인들은 은행이나 관공서까지 불편한 땀을 흘리고 가 돈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농촌에 있는 부모

님을 직접 찾아가 뵙지 못하는 자녀들에겐 효도를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도시 자녀들이 농촌에 있는 부모님의 공과금 등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

▲정경안·광주시 북구 누문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無 等 鼓

사과는 남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얻기 위함이다.

가장 아름다운 사과는 무엇일까. 빌리 브란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방전이 절정이던 1970년 서독 총리 브란트는 폴란드를 방문했다.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지난해 8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해 참회하고

무릎을 꿇었다. 청년 시절 나치의 청소년 조직 '히틀러 유겐트' 단원이었던 교황의 참회는 또 다른 반향을 불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유대인 박해 등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7가지 죄악에 대해 인류의 용서를 빌었다.

또 다른 한편의 사과 드라마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최근 앤드루 호킨스라는 37세의 영국 남자가 400여년의 세월을 넘어 아프리카 군중 앞에 무릎 꿇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진정한 사과는 이처럼 감동을 준다. /오주승 정치부장 js0h@kwangju.co.kr

진정한 사과



Table with Kwangju Ilbo logo and subscription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